

승리신문

영생학 소개

‘피의 원리’ 알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

“피의 원리”란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밝힌 원리이다. 신경과학, 뇌과학, 건강심리학 등이 오늘날과 같은 수준으로 발달하기 전에는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위의 학문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떨어져 뗄 수 없는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피의 원리’는 이진자 조희성님이 1981년 처음 발표한 이론으로 그후 과학자들이 ‘피의 원리’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결과를 밝히기 시작했다. 앞으로 관련 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피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체했을 때 사관을 따면 체중이 가신다 막혔던 혈관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는 여러가지 예
위에서 말했다시피 ‘피의 원리’는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하는 원리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죽는 생각을 하면 죽은 피로 변해서 죽게 되고, 불로장생하는 생각을 하면 불로장생의 피로 변해서 불로장생하게 된다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생각에 따라 피가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에 따라 피가 변한 것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예로써 알아보자.
(예 1)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체한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먹다보니 체하기도 하고, 언짢고 불편한 일이 있어서 그 생각을 하다가 먹으니 체하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다보니 체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체하게 한 원인은 급한 마음, 언짢은 마음, 그리고 먹기 싫은 마음이다. 바로 그 마음으로 말미암

아 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급한 마음, 언짢은 마음, 그리고 먹기 싫은 마음을 품는 순간 피가 그 생각대로 변한다. 그런데 위의 생각은 죽는 생각이라 피를 썩게 한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썩은 피가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가로막게 되며, 그 결과 위장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히고, 소화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어 위경련이나 위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체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관을 따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체한 사람의 팔을 쓸어내려서 엄지손가락을 바늘로 찌면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검붉은 피가 나온다. 이 검붉은 피가 바로 썩은 피인데 그 피가 한두 방울 나오고 나면 모세혈관을 가로막고 있던 썩은 피가 마치 막힌 하수구가 뚫리듯 뚫리면서 트림이 나오고 소화기능이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체했을 때 사관을 따면 소화기능이 되는 원리이다.
(예 2) 무슨 일로 근심 걱정을 깊이 오래 하게 되면 얼굴에 기미가 끼게 된다. 갑자기 얼굴에 기미가 끼게 된 것은 바

로 근심 걱정 때문이다. 근심 걱정을 할 때 피가 썩어 되고, 그 썩은 피가 얼굴에 기미로 나타난다. 근심 걱정을 깊이 하면 밥맛도 떨어지고 기억력이 쇠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한다. 이 또한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예 3) 순간적으로 심하게 놀라서 목숨을 잃는 쇼크사(Shock 死)도 놀라는 순간 피가 썩어서 심장 혈관을 막게 되어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예 4) 좋은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나오면서 얼굴이 밝아진다. 이는 마음이 기쁘지기 때문에 피가 불로장생의 피로 변한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웃음으로 말미암아 엔돌핀, 엔케팔린 등의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가 맑아진다고 하고 있다.
이밖에도 마음에 따라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하는 현상은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텔로미어 과학이 말하는 피의 원리

최근 각광 받는 텔로미어 과학에 의

하면 죽는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의 텔로미어의 길이는 죽는 생각을 덜 하는 사람의 길이보다 더 짧다고 한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끝에 달려있는 것으로 그 길이에 따라 세포의 수명이 달라진다. 세포가 분열할 때 텔로미어가 짧아지는데 텔로미어가 짧아져 분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노화세포, 또는 죽은 세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텔로미어 조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는 우리의 생활습관이나 생각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생각에 따라 텔로머라제의 양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세포분열을 계속할 수 있거나 노화에 이르거나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몸 전체나 두뇌의 텔로미어 길이를 판단할 때 흔히 백혈구의 텔로미어 길이를 판단한다고 한다. 백혈구 텔로미어가 짧으면 몸 전체나 두뇌의 텔로미어가 짧고, 그 반대로 길면 길다는 것이다. 즉 백혈구 텔로미어는 몸 전체 텔로미어의 지표인 셈이다. 백혈구는 혈액 속에서 역할을 하므로 피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다. 우리의 인식작용, 무의식 등과 신진대사에 따라 두뇌에서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거나 분비하라고 명령하면 그에 따라 뇌하수체나 관련 기관에서 그 명령을 수행한다.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 효소, 영양소 등 생명현상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운반되므로 이에 따라 피가 변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플라시보(위약偽藥)효과라는 게 있다. 밀가루로 만든 약을 진짜 진통제로 알고 먹으면 엔돌핀이 발생하여 진통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 즉 피가 변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아직 과학이 ‘피의 원리’를 입증해주는 것이 미미하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들이 입증될 것이라 생각된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53)
“나쁜 버릇을 버려야”

한 사람의 완성자가 나오기까지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그렇게 수월한 과정이 아니었다. 죽을 고비를 넘고 또 넘고, 참을 수 없는 경지에서 또 참고 견디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자가 나온다.

그런고로 여러분들도 승리제단에 그저 왔다갔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은 신경질부터 버려야 된다. 남의 흥을 잘 보고 남을 공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된다. 이간질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은 입에 재갈을 물어야 한다.

나쁜 버릇을 버려야 옛 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좋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세상말로 남의 다리 굽는 격이 되고 마는 것이다.*

사람이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사람은 죽기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의 두뇌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다. 스티븐 케이버(Stephen Cave) 철학박사는 자신의 저서 『불멸에 관하여(Immortality)』에서 이를 ‘죽음의 파라독스(Mortality Paradox)’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는 필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다시 말하자면 삶의 영속성을 단절시키는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사실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해왔음을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종교의 탄생이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의 창시자 또는 교조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인류는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궁금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병고 등으로 인해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삶과 죽음에 대한 진실한 물음이 시작된다. 나도 죽는가?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천당과 극락 같은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부활)는 매력ique(妙藥)을 가지고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다. 감로(甘露)가 바로 영생의 물질이다.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감로를 먹지 못해서 죽었던 것이다. 감로를 무진장 소유하고 계신 구세주가 출현하였으므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오직 감로는 승리제단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 오지 않으면 결코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찬송은 자연스런 폐기수행

도교나 선가에서 행하는 폐기(閉氣) 수행을 우리 제단에서는 예때 때에 부르는 찬송과 순배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희성님께서는 나쁜 생각이 일어날 때 숨을 참고 물리치셨다고 하셨는데,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위험하니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리제단에서는 회의를 할 때 찬송가로 시작하고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일종의 폐기수행입니다.
숨을 참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

이 행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중요한 순간을 당하면 저절로 숨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잠시 숨을 멈추고 시작하면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끝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성악하시는 분들 가운데 예지의 능력이 대단한 범상치 않은 능력을 보유한 분들이 있는데 폐기수행이 깊어지면 단전호흡이 자연적으로 일어나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어

심장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전신의 체온이 상승하여 발바닥까지 따뜻한 기운이 돌아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육이 강건해지고 깊어지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목소리는 수행을 하는 데 아주 유용한 기관으로 자기를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될 때나 나쁜 일만 계속될 때, 많이 오염이 됐을 때는 처음으로 별마경을 지속적으로 소리내어 보면 자신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때가 울 정도로 정화작용이 됩니다. 고음은 우리 마음을 시타파로 만들어주며 잠재의식이 열리는 작용을 하므로 명상의 효과와 기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약기보다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의 세포와 근육의 파동에 주파수를 높여주어 정화작용, 에너지의 활성화작용, 초고주파수로 바꾸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기와 목소리, 소리로 공간환경을 바꿔주고 의의치료, 자기계발 등에 이용하고 있는 공간음악프로듀서 무리아마(村山友美)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악을 쓰듯이 소리만 질러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집중하여 크게 부를 때 마음도 깊어지고 숨도 깊어져서 진정한 수행의 찬송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금옥 사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겨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 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 一人出된 眞人의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삼신일체일인출

진인

감로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끝)



2018 승리절 경축행사에서 내린 이슬성신 (오른쪽 끝)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